오늘의 주요기사

2021. 03. 04 (목)

인쇄 면수	제목	언론사	카테고리	면수
1	전주대 박물관, '길 위의 인문학' 8년 연속 선정	전북일보	사람	015
2	길위 인문학 사업 8년 연속 선정	전라일보	사람	014
3	전주대박물관 길위의인문학 선정	전북중앙	사람	008
4	전주대 박물관 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 8년 연속 선정	새만금일보	종합	002
5	전주대 박물관 '길 위의 인문학' 8년 연속 선정	전북타임스	문화	008
6	전주대 박물관, ' 길 위의 인문학 사업' 8년 연속 선정	전주매일	교육·문화	012
7	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전주대 박물관, 8년 연속 선정	전북금강일보	지역	012
8	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 선정	전주일보	종합	004
9	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	호남제일신문	문화	010
10	문화유산 소중함 알리기 올해도 쭉	전북연합신문	교육	004

확대비율: 100%

全北日報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15면 사람 12.0 x 6.7㎝

전주대 박물관, '길 위의 인문학' 8년 연속 선정

전주대학교 박물관(관장 김건우)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.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,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

백세종 기자

확대비율: 100%

全羅日報
2021년 3월 4일 목요일 014면 사람 6.2 x 12.5㎝

전주대학교 박물관

길위 인문학 사업 8년연속 선정

전주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됐다.

이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다.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,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 전주대 박물관은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

/정해은기자 · jhe1133@

확대비율: 100%

전북중앙
2021년 3월 4일 목요일 008면 사람 6.2 x 10.0㎝

전주대박물관 길위의인문학 선정

전주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선정되면서 올해로 8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. 이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 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,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 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,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하여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 /정병창기자

확대비율: 80%

새만금일보

2021년 3월 4일 목요일 002면 종합 24.8 x 14.4㎝

전주대 박물관 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 8년 연속 선정

창의력·상상력 증진 프로그램

관계자 "더 많은 학생들이

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"



2020년 전주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자료사진.

전주대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.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

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,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

박현수 학예연구관은 "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 체험,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"라고 말했다.

전주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·교육·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, 초·중·고등학생,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. /염형섭 기자

확대비율: 100%

전북타임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08면 문화 12.0 x 19.9㎝



전주대 박물관 '길 위의 인문학' 8년 연속 선정

청소년 창의력 • 상상력 증진‥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

전주대 박물관(관장 김건우)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되었다.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,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,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 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,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하여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

박현수 학예연구관은 "더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 체험,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전주대 박물관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·교육·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지역주민, 초·중·고등학생,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.

/김영태 기자

확대비율: 100%

전주매일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12면 교육·문화 14.6 x 16.0㎝



전주대 박물관, '길 위의 인문학 사업' 8년 연속 선정

전주대 박물관(관장 김건우)은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.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,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다.

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.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,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 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,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하여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

박현수 학예연구관은 "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 체험,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·교육·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

/장은성 기자

확대비율: 100%

전북금강일보
2021년 3월 4일 목요일 012면 지역 6.3 x 14.1㎝

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
전주대 박물관, 8년 연속 선정

전주대 박물관(관장 김건우)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됐다.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 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,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,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

/기동취재부 gkg8@daum.net

확대비율: 100%

전주일보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04면 종합 12.1 x 12.6㎝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 선정

전주대 박물관, 8년 연속… 모든 프로그램 전액 무료

전주대학교 박물관(관장 김건우)은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됐다.

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,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,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

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,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

박현수 학예연구관은 "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 체험,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한편, 전주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·교육·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지역주민, 초·중·고등학생,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.

/고병권 기자

확대비율: 100%

호남제일신문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10면 문화 11.6 x 21.4㎝

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

전주대 박물관, 8년 연속 선정

전주대 박물관(관장 김건우)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에 8년 연속 선정됐다.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

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

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,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

박현수 학예연구관은 "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 체험,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"고 말했다.

전주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·교육·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, 초·중·고등학생,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.

/김지애 기자

확대비율: 80%

전북연합신문

2021년 3월 4일 목요일 004면 교육 24.2 x 15.3㎝

문화유산 소중함 알리기 올해도 쭉

전주대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8년 연속선정 쾌거 고고학체험등 프로그램운영



전주대박물관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인문학 사업' 에8년연속 선정됐다.

전주대 박물관(관장 김건우)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'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' 에 8년 연속 선정됐다.

'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'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. 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'조물 조물 흙으로 만들고! 그리고!(고고학체험)', '민화의 모든 것(텀블러 만들기)', '마음새김(도장 만들기)'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,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,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4차례 심화학습으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등 유형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. 전주대 박물관은 특수학교, 농촌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박물관'을 운영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

전주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·교육·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지역주민, 초·중·고등학생,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.

임종근 기자jk063@naver.com